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남원' 첫걸음 내딛다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주민 불편 해결 노력

지난 7월 31일자로 제79대 남원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철수 서장이 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사에서 김 서장은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전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이 되자"고 당부했다. 취임 후 김철수 서장은 민·관·경 협력치안 활동으로 각종 캠페인, 합동순찰, 범죄예방 강연, 범죄환경 개선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소통과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 일정을 살펴본다.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김철수 서장은 직원들과의 거리를 줄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간소화시켜 낭비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해 경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활동하는 김철수 표 '관계중심'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

▲안전한 남원 조성

김철수 서장은 취임 직후 기능별 업무 보고를 받고 남원의 치안여건과 상황을 점검한 뒤, 곧바로 남원경찰서 산하 18개 지구대·파출소 치안현장 방문을 통해 치안 일선에서 힘쓰는 직원들과 소통하고, 한 발 더 빠른 지역 치안상황 파악으로 '안전한 남원'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직접 관내 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 전동리보드 안전교육 등 특강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범죄예방에 적극 나서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은 물론, 취약지역 예방 순찰에도 직접 참여하는 순선수법 자세로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뛰고 또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치동 울치마을 범죄예방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골목길 조도 향상과 코너 시각지대 위험 상황을 대처가 가능하도록 술라 벽화, 술라 안심등, 안심 반사경을 설치하고, 골목길 벽면 도장 등을 통해 밝은 거리,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했다.

또한, 덕음산 등산로와 광치천 생태공원에 대해 지자체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투광기 41대, 다리안전 난간대 1개소, CCTV 1대, 술라 표지병 200개 등을 설치해 주민 불안감 해소하는 등 주민친화적 범죄예방 환

경개선 완료하는 등 김철수 서장은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치안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24시간 안전한 남원을 위한 실천적인 모습이 돋보인다.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남원

김철수 서장은 남원경찰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10월에 집중된 세계드론제전 흥부제, 남원예술제, 뽕사골 단풍제 등 각종 행사와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자칫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축제 전(前) 상황 모의 훈련을 통해 민방의 준비를 통해 적재적소에 경찰력을 배치, 안전사고 없이 지역주민과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뛰어난 현장 지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

김철수 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8개소와 기종점 노면표지 4개소를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를 위해 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를 통해 내실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남원교육지원청, 학부모회, 학생 교직원,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방문해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을 적극 추진해 사전등록률 100% 달성으로 전북정 1위 달성 등 어린이 실종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뽕사골 등 가을 행락지 범죄예방과 교통안전관리, 범죄 취약지 주변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시행하고 관내 8



개 학교 31명의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활발한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31.7% 감소, 소년범 9.1% 감소 등 뚜렷한 성과가 치안지표로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민간단체와도 연계해 아동학대 피해 가정 환경개선에 도 적극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김철수 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 치안을 통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으로 더욱 안심하고 편안할 수 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든든한 방패, 날카로운 칼

김철수 경찰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전화금융사기 경고발령'을 내리고, 전화 금융사기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전선으로 나섰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의심 제보하고 직접 현금 수거책 잡아 지구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제보와 범죄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며, 남원에서 발생한 전국 무대 절도범을 끈질

불필요 행정 업무 간소화
경찰관 업무 집중 분위기 조성

광치동 울치마을 범죄예방
인프라 개선에 주민의견 반영

10월 집중 각종 축제 대응
사고 無... 현장 지휘력 인정

▶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긴 탐문과 추적 수사로 타지역에서 검거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에 적극 실시해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전년 대비 38% 감소, 마약범죄 검거를 200% 달성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원경찰이 범죄예방과 검거,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남원 안전에 안착시키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범죄자가 남원을 지나면 모두 잡힌다'라는 공식을 만들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웃사랑 나눔 실천

김철수 경찰서장은 지적장애 가정, 범죄피해자 가정, 경제적 위기 청소년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품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공상경찰관, 투병경찰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 선배경찰관을 위문하는 등 따뜻한 위로와 나눔의 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남원경찰 구성원들은 김철수 서장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분야에서 '안전한 남원 따뜻한 남원'이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철수 서장은 "언제나 남원 경찰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준비된 상태로 국민의 부담에 응대하는 남원 경찰로서 '안전의 시작'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경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서장은 "지금까지의 100일간 행보는 앞으로 남원 경찰이 나아가야 할 목표로, 힘찬 내일을 위해 경찰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발전해 나가는 '안전한 남원, 따뜻한 남원'을 위한 믿음직한 남원 경찰의 앞날을 기대해 달라"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